

2023 경기예술지원 기초예술창작지원 【 공연예술-창작준비 】 심의평

2023 경기예술지원 기초예술창작지원 창작준비 부문은 284건이 접수되어 서류평가를 통해 인터뷰 심의 대상 18건을 결정한 후 인터뷰 심의를 통해 최종 12건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심의기준은 신청자(30), 사업계획(30), 작품내용(30), 기대가치(20)로 신청자의 예술적 역량, 목표 부합성, 예술성 그리고 예술적 기여도 등을 준거로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평가 기준에 더하여 심의위원들은 무용, 연극, 음악의 세부 장르에 대한 배분, 각 지역 예술활동에 대한 배려 그리고 공공지원의 타당성 등에서도 많은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장르별 세부 심의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음악 분야에서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려는 시도가 확연한 지원자를 발탁했습니다. 창작 중인 소설을 작가와의 협의를 통해 오페라로 무대에 올리며 현대사회의 고독사 문제를 투영하거나, 전통 국악 타악기인 오고무를 전자 사운드와 현대음악 기법으로 재해석해 음향의 확장을 도모하거나, 사운드 프로그램의 중계를 통해 언어장애를 남미의 타악기와 선율악기로 극복하거나, 음악인의 일상을 노동 현장의 컨베이어벨트에 빗대어 논버벌 공연으로 개척하는 등 현 시대상을 반영한 동시 통상적인 공연 경향에 새로운 반향을 일으킬 수 있는 공연들로 선정했습니다.

무용 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 신청 건수는 적었으나 전체적으로 적극적인 열정과 창의적 의지, 예술가로서의 철학이 느껴지는 젊은 안무가들의 패기가 인상 깊었습니다. 대부분 현대무용 분야가 많았고 전통 창작무용이나 한국 창작무용, 창작 발레의 지원자가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하여 아쉬웠습니다. 일부 안무가들은 다른 분야와의 접목을 위한 실험정신이 돋보였고, 무용수 활동을 겸비한 안무가들은 신체 움직임 분석에 주력하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젊은 안무가들이 자신의 작업에 자부심을 가지고 뚜렷한 목표를 지향하는 모습에서 향후 작품에 대한 기대가 됩니다.

연극 분야의 경우 예년에 비해 개인의 지원이 많았습니다. 세부적으로 연극, 뮤지컬을 비롯해 융복합, 가족극 등 다양한 장르의 지원과 다양한 주제와 실험성이 돋보이는 작품들이 지원하였습니다. 신청자 혹은 단체의 역량과 가능성 그리고 창작준비 과정 이후의 목표와 방향성의 계획이 구체적인 사업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예산 부분 역시 적은 예산 안에서 효율적인 집행과 실현이 가능한가에 초점을 맞춰 심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연극 분야의 경우, 전반적으로 우열을 가리기 힘든 좋은 기획안들이 많아 1차 서류 심의를 비롯해 2차 인터뷰까지 심사위원들의 오랜 토의와 숙의가 있었습니다.

기획의 경우, 결정되지 않은 여러가지 상황으로 인해 기획에 대한 예측이 어려웠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무대연출에 대한 창작자의 의도를 전혀 발견할 수 없거나, 부족한 신청자가 다수였습니다. 반면 실제 구현 여부를 떠나 창작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연상할 수 있을 정도의 연출 기획을 작성하였던 일부 작품은 인상적이었습니다.

보다 더 많은 작품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지 못한 것은 심의를 마치면서 가장 아쉬운 점으로 남습니다. 특히 서류심사에서 수많은 단체가 탈락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매우 아쉽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우수한 작품들이 무대에 오르고, 더욱 훌륭한 작품으로 발전되어 공연예술 콘텐츠가 풍성해지고 예술가들 또한 지속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많이 생기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2.21.

심의위원

도준태 (문화예술데이터연구소 대표)

조은아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피아니스트)

이미희 (삼육대학교 학부대학 무용학 교수)

한아름 (프리랜서 극작가)